

아동의 성격특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sonality Traits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박영애**
수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최영희
영남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박인전

Dept. of Child Development & Guidance, Hannam University
Professor: Park, Young-Yae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University of Suwon
Associate Professor: Choi, Young-Hee
Dept. of Child Studies, Yeungnam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Park, In-Jeon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hildren's personality traits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The Subjects were 1060 5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four cities of Seoul, Suwon, Daejeon, and Daegu, Korea. The results indicated that girls in general showed more of the positive personality traits and higher emotional intelligence(EI) than boys did. Reflectiveness and sociability among seven personality factors had positive effects on all of the four EI factors. Responsibility factor of personality positively affected "self-regulation and emotion utilization" of both boys and girls, while activity factor had a positive effect on "other-regulation and self-expression". Sta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regulation and emotion utilization" among girls, whereas superiority had a negative effect on "empathy" among boys.

▲ 주요어(key words) : 아동(children), 성격특성(personality traits),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성차이(sex difference).

1. 서론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 EI)이라는 다소 충격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새로운 개념이 세계적으로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지능보다는 인성이 중요하고, 개인의 능력과 지식 못지 않

게 인간관계와 정서가 중시되어야겠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학력과 입시위주의 교육이 비판받고 인성교육과 정서함양이 새삼 강조되며 경쟁보다는 협동과 공존이 요구되고 실천하는 도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만 가는 반인륜적, 비도덕적, 반사회적인 각종 범죄와 사건들을 접하면서, 그리고 더욱더 즉흥적, 즉각적인 욕구충족을 추구하고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위기의식과 불안, 분노와 자탄, 체념과 둔감화를 어쩔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 이 논문은 1999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99-C00205).

** 주저자 : 박영애(E-mail : yypark@mail.hannam.ac.kr)

현실이다. 그래도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후세의 올바른 양육과 교육에 힘써 바람직한 인성과 건강한 정서를 지닌 인재들을 육성해 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며, 이를 위한 대규모의 체계적, 다학제적인 협동연구들이 우리 사회와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왔던 감성능력은 실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사회적 적응과 성공을 일구어 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Mayer & Salovey, 1990)이다. 이 정서능력은 인지적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도 있고 억압하고 제한할 수도 있으며 서로 다른 능력을 종합하고 조화시켜 실현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문용린, 1997). 아동의 학업성취와 학교적응도 이 정서지능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인지적 장애와 상관없이 감성지능 요소 중 한가지 이상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는 학교, 학업, 또래에의 적응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황태호, 1998).

성격이란 개인 내면의 심리적, 신체적 체계가 역동적으로 조직화되면서 나타나는 사고·감정·행동의 복합체로서 개인이 지닌 독특한 특성이다. 또한 성격은 그의 특징적 행동과 느낌과 사고에 일관된 양식으로 영향을 주는 심리기제로서의 정서적, 동기적, 인지적 과정을 포함하는 개인 내적 과정을 의미한다(Bueger, 2000). 즉 성격이란 개인의 일관된 행동양상을 설명해 주고, 주어진 상황에서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며, 그의 삶에 방향과 일관성을 주는 힘이자 내적 정신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성격과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대해 최근 학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상이한 이론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두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와 논쟁은 정서지능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고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와 검사들이 제작·소개되는 과정에서 정서지능의 개념과 범주 및 구성요인들이 성격의 구성요인들과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있음을 발견한 성격심리학자들에 의해 이의와 반론이 제기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기능과 건강한 발달의 기반이자 핵심요인의 하나인 성격과 그의 적응과 성취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신적 능력과 기술로서의 정서지능(Mayer, Salovey, & Caruso, 2000)이 서로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아동의 성격은 그의 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정서지능이란 정서와 지능을 합성한 용어로서 지능(IQ)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 : SI) 보다 정서지능이 종래의 지능과 더 확실히 구별될 수 있고, 차별화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는 확신 하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Mayer & Salovey, 1993).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이 학문적으로 연구되고(Emmons & Colby, 1995) Time지와 같은 세계적인 잡지(Gibbs, 1995)와 대중적인 서적(Goleman, 1995b) 등에 소개되면서 그 정의와 중요

성에 대해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다. 정서지능이 IQ보다 성공과 성취에 대한 예측력이 더 높다거나 정서지능이 IQ보다 두배는 더 중요하다(Goleman, 1998)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대중화된 주장은 학문적 연구결과들과 크게 상충하며(Mayer, Salovey, & Caruso, 2000) 확실한 증거도 없다는 반박(Davies, Stankov, & Roberts, 1998; Epstein, 1998; Mayer & Cobb, 2000; Mayer, Salovey, & Caruso, 2000)도 있다.

그런가 하면, 정서지능이 아직은 거의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것이 무엇에 얼마나 중요하고 무엇을 예측해줄 수 있는지(그리고 정서지능의 결정요인이나 관련변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진 게 별로 없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IQ도 학업성취나 직업적 성공을 10~20% 정도밖에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고 인성 특성이 실제 생활이나 행동을 설명해 주는 비율도 매우 낮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정서지능이 개인의 행동이나 특성을 10%만 설명한다고 해도 이는 매우 큰 것이므로(Mayer & Salovey, 1997)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정서지능은 개인의 성격의 일부로 파악되기도 하고 일종의 정신능력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는 정서지능을 인성특성에 나타나는 적응적 특성들이나 능력들로 정의하는 입장에서 감성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성격특성을 포함한다거나(Plutchik, 1962) 성격특성이 감정의 파생물이라는 주장(Conte, 1975), 감성을 성격의 하위체로 보는 입장(Izard, 1977), 이 전자의 입장은 인성이나 성격의 모든 요소들을 정서지능이라고 재명명하고 성격연구를 정서지능 연구라고 부르면서 기존의 유사이론과 단절된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는 것은 공연한 비용을 치르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실망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Goleman, 1995b; Goleman, 1998; Cooper, 1996,1997)

후자의 경우는 인성특성은 어디까지나 특성이고 그 자체가 능력이나 지능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정서지능을 일련의 비인지적인 능력과, 유능성 및 기술로 보고 환경적 요구와 압력을 견뎌내는 데 성공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Bar-On, 1997)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지능이란 그 일차적 목표가 문제해결인 만큼 정서지능도 문제해결능력에 초점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정서지능은 정서관련 문제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기술, 잠재적 역량들을 의미한다고 주장(Mayer, Salovey, Caruso, 2000)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능력이란 그 종류가 무엇이든 주어진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낼 때의 개인의 특징이므로(Carroll, 1993) 정서지능이라는 정신적 능력 역시 과제수행이나 문제해결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외에 정서지능(ET)과 정서적 유능성(Emotional competence)을 구별하면서 정서적 유능성이 정서지능보다 성숙함과 윤리성 및 통하병을 지닌 역량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에 대한 후자의 개념을 기본적으로는

수용하면서, 비록 성격과 정서지능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일부 개념적 중복을 보이는 면이 있다해도 성격이 정서적 반응과 사고 및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정서지능과 성격과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양할 것이다. 정서지능은 일부 기질과 같은 생득적인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학습된 것이며 인지적 과정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정서지능은 부모의 양육행동, 성격, 아동자신의 성격, 기질, 인지양식, 경험한 사건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Rubin, 1998; 박영애·최영희·박인전, 2000; 박영애·최은경, 2001) 본 연구에서는 아동자신의 성격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환경에 대한 적응이나 대인관계에서 드러나는 비교적 일관성있고 독특한 개인의 행동양식이나 사고양식의 특징적 총체라 할 수 있는 아동의 성격특성과, 자신의 감정상태를 알고 그 감정을 타인에게 적절하게 전달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여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고 자신의 정서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아동의 정서지능의 특징, 및 성격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러한 관계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성격과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을 검증해보고 일부 경험적 연구의 결과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데 있고, 둘째, 아동의 성격특성과 정서지능의 구성요인들간의 구체적인 관계양상을 파악해 볼 수 있음으로 해서 아동의 원만한 품성 형성과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정서적 성장·발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동 교육과 지도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동의 성격특성과 정서지능은 각각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아동의 성격특성과 정서지능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 관계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3.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한 성격특성 요인들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이 설명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성격특성 및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에 관련된 일련의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다. 서울, 수원, 대전, 대구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5학년 아동 1104명(서울 216명, 수원 257명, 대전 285명, 대구 346명)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된 자료 중 1060명의 아동들

의 성격 및 정서지능에 관련된 자료들이 본 연구를 위해 분석되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크게 2가지로서, 아동의 성격 검사도구와 정서지능 척도가 사용되었다.

1) 아동의 성격특성

아동의 성격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상로·변창진·진위교(1982)가 엮고 중앙적성연구소에서 제작한 초등학교(고학년용) 성격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의 성격적 특징 및 인성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작되고 표준화된 검사로서 총 10개 요인, 2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기술척도와 임상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의 신뢰성을 평가해볼 수 있는 간단한 타당성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인성특성들을 측정할 기술척도 부분이 분석되었다.

기술척도는 7개의 성격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하위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안정성: 정서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정의 안정 및 평온, 확고한 자신과 낙관, 조용하고 침착하며 태연한 특성 등을 포함한다.
- ② 활동성: 일상생활에서 행동이 민첩하고 정력적, 활동적이며, 부지런함을 보이는 성격 특성을 의미한다.
- ③ 사회성: 대인관계에서의 사교성, 협동성, 대인 순응성 등을 의미한다.
- ④ 남향성: 남성적인 성격특성으로 정력, 운동, 노동이 필요한 활동적인 일을 즐기는 특성을 말한다.
- ⑤ 책임성: 인내성, 주의집중력, 자발성, 자기통제력, 의지력 등을 지니고서, 맡은 일을 끈기있게 완수하는 성격특성을 일컫는다.
- ⑥ 사려성: 행동보다 사색에 시간을 보내며 사태의 원인 규명, 반박, 논증 등을 즐기는 논리적, 이지적 특성을 일컫는다.
- ⑦ 우월성: 우월감-열등감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우월감이 높을 때는 자신감을 가지며 자기 과시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는 성격특성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각 영역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Spearman-Brown 공식을 적용한 기우반분(Split-half method) 신뢰도 계수가 .72에서 .89로 나왔으며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2) 아동의 정서지능

아동의 정서지능 척도는 정서지능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

(곽윤정, 1997; 문용린, 1997; 문용린, 곽윤정, 이강주, 1999; Salovey & Sluyter, 1997)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팀이 제작한 것이다(박영애·최영희·박인전, 2000). 척도는 본래 자기 정서 조절, 타인 정서조절, 자신의 정서인식, 타인의 정서인식, 정서 표현, 감정이입, 정서활용 등 7개의 하위영역에 걸친 80개의 문항으로 시작하여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63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이다.

요인분석을 거치면서 척도의 요인은 네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이들은 '자기 정서조절 및 정서 활용'(이후는 '자기조절 및 활용'으로 약칭함), '정서인식',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이후는 '타인조절 및 표현'으로 약칭함), 그리고 '감정이입'이다. 제 1 요인인 '자기조절 및 활용' 요인은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려 하며, 아울러 강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는 현재 진행중인 문제로부터 벗어나 기분을 전환하거나 새롭고 보다 중요한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내용의 문항들을 포함한다. 특히 정서활용은 사고와 추리 및, 문제해결에 정서를 적극적, 적응적,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문제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전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제 2 요인인 '정서인식' 요인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상태를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으로 전체 정서 지능의 토대가 된다. 즉 정확한 정서인식 능력은 적절한 정서의 표현과 조절 및 감정이입의 기초가 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 요인인 '타인조절 및 표현' 요인은 타인의 감정이입이나 기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하고 바꾸어 주기 위해 노력하며, 그것을 위해 자신의 정서 표현을 조절하고 상황에 맞게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제 4 요인인 '감정이입' 요인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재경험해 보는 것으로서 타인이 느낀 감정이입이나 기분을 마치 자신이 느낀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척도의 점수체계는 3점 척도로서, 아동이 평소에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과 행동을 나타내는 문항내용에 대해 자신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그렇다'(3점), '가끔 그렇다'(2점), '그렇지 않다'(1점)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서지능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69에서 .80의 분포를 보였고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90으로 나왔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정서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응답자의 자기이해에 의존하는 자기보고식 측정(예: Bar-On, 1997; Mayer & Gaschke, 1988;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이고, 둘째는 다른 정보원에 의존하여 평정하는 방법(Boyatzis, R. E., Goleman, D., & Hay/Mcber, 1999)으로서, 아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해 어떻게 지각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셋째

는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능력이나 성취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Mayer, Salovey, & Caruso, 1997, 1998)이다. 본 연구는 이들 중 첫 번째인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한 관계로 아동에 대한 객관적 정보라든가 아동의 실제능력과 특성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아동의 자아개념 또는 자기인식을 측정한 것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은 예비조사(2000년 2월)와 본 조사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2000년 5월 8일~5월 23일 까지 실시되었는데, 전국 4개 도시(서울, 수원, 대전 대구)를 대상으로 총 1113부가 배부되어 1104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불충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1060부의 설문지가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한글 SPSSWIN Program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독립표본 t-test,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으로 통계 처리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아동의 성격 특성과 정서지능의 차이

아동의 성격특성과 정서지능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아동 성격 특성

일곱가지의 성격 하위 요인들에 있어 아동은 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t-test의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성격 특성은 사려성을 제외한 다른 특성들 즉 안정성($p < .01$), 활동성($p < .01$), 사회성($p < .01$), 남향성($p < .001$), 책임성($p < .001$), 우월성($p < .05$)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아는 남아에 비해 안정성, 사회성, 책임성, 우월성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며, 반면 남아는 여아에 비해 활동성과 남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시기에는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고 대인관계에서 보다 원만하고 사회적 기술이 더 발달해 있으며 남아들보다 자기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편이고 책임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남아들은 전형적인 남성특성인 남향성이 훨씬 더 강하고 에너지와 운동성·이동성등을 포함하는 활동성이 확실히 높음을 보여준다.

2) 성별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들에 있어서 아동들이 성에 따른 차이를

<표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 성격 특성의 차이

구분	안정성		활동성		사회성		남향성		책임성		사려성		우월성	
	M (SD)	t값	M (SD)	t값	M (SD)	t값	M (SD)	t값	M (SD)	t값	M (SD)	t값	M (SD)	t값
남	16.02 (5.20)	-3.125**	15.43 (4.17)	3.021**	19.51 (4.59)	-2.937*	16.38 (2.98)	19.085**	15.97 (4.81)	-4.579**	15.42 (4.60)	.195	17.83 (5.69)	-2.099*
여	17.08 (4.96)		14.57 (4.31)		20.44 (4.84)		12.24 (3.43)		17.49 (5.11)		15.36 (4.56)		18.63 (5.82)	

*p< .05 **p< .01 ***p< .001

<표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의 차이

구분	자기조절 및 활용		정서인식		타인조절 및 표현		감정이입	
	M(SD)	t값	M(SD)	t값	M(SD)	t값	M(SD)	t값
남	2.18(.32)	-.751	2.43(.34)	-4.012***	2.33(.36)	-6.842***	2.11(.44)	-2.129*
여	2.19(.36)		2.52(.32)		2.49(.35)		2.17(.42)	

*p< .05 ***p< .001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t-test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정서지능은 자신의 정서조절 및 활용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즉 정서인식(p<.001), 타인조절 및 표현(p<.001), 감정이입(p<.05)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아가 남아에 비해 정서인식, 타인조절 및 표현, 감정이입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을 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인식에 민감한 편이고,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고 타인의 정서를 배려한 정서표현을 하는 경향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신에게 이입하여 공감하는 능력이 남아보다 확실히 높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의 성격 특성과 정서지능간의 상관관계

아동의 성격 특성과 정서지능의 각 하위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아동, 남아, 여아로 나누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격특성과 정서지능간에는 각 변인의 모든 하위요인들간에 전반적으로 높은 유의도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 중 일부는 .4이상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고 상관계수들 중 ½이상이 .3이상의 상관을 보였으며 .2이상은 대략 ½을 웃도는 정도로 나왔다.

정서지능 중 자기조절 및 활용능력과 아동의 성격 특성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아동의 경우, 자신의 정서조절 및 활용 능력은 특히 책임성(.420) 및 사려성(.418)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책임성과 사려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성(.353), 안정성(.310), 우월성(.206)과도 상관을 보여 아동이 사회성, 안정성, 우월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상관관계 양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는 다른 특성에 비해 사려성(.433)과, 여아의 경우는 책임성(.470) 및 안정성(.415)과 높은 상관을 보여 남아는 특히 사려성이 높을수록, 여아는 특히 책임성과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기 정서조절 및 활용 능력이 높

<표 3> 아동 성격 특성과 아동의 정서지능간의 상관관계

	자기조절 및 활용			정서인식			타인조절 및 표현			감정이입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안정성	.310***	.217***	.415***	.162***	.113*	.180***	.190***	.110*	.211***	.047	-.078	.171***
활동성	.155***	.200***	.089	.174***	.187***	.179***	.282***	.327***	.301***	.175***	.176***	.177***
사회성	.353***	.337***	.370***	.355***	.303***	.373***	.462***	.432***	.471***	.190***	.130**	.236***
남향성	.040	.030	.077	.045	.018	.043	-.125**	.013	-.030	-.075*	-.082	-.020
책임성	.420***	.357***	.470***	.281***	.248***	.266***	.350***	.331***	.290***	.159***	.102*	.185***
사려성	.418***	.433***	.398***	.328***	.358***	.312***	.346***	.401***	.296***	.327***	.323***	.335***
우월성	.206***	.156***	.276***	.238***	.204***	.250***	.216***	.156**	.245***	-.003	-.122**	.102*

*p< .05 **p< .01 ***p< .001

음을 알 수 있다. 안정성과의 상관에 있어서는 남아(.217)에 비해 여아(.415)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아는 남아에 비해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기정서 조절 및 활용 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활동성과의 상관에 있어서 여아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아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200) 남아가 활동성이 높을수록 자기 정서조절 및 활용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정서인식 능력과 아동의 성격 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아동의 경우, 정서인식 능력은 사회성(.355) 및 사려성(.328)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여 아동이 사회성과 사려성이 높을수록 정서인식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책임성(.281), 우월성(.238)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책임감과 자신감 있을수록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상관관계의 특징상의 차이로는, 남아의 경우는 다른 특성에 비해 사려성(.358)이, 여아의 경우는 사회성(.373)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 남아는 특히 사려성이 높을수록, 여아는 특히 사회성이 높을수록 정서인식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조절 및 표현 능력과 아동의 성격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아동의 경우, 타인의 정서조절 및 자기정서 표현 능력은 사회성(.462)과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432), 여아(.471) 모두 다른 특성에 비해 사회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 아동이 사회성이 높을수록 타인 정서조절 및 정서 표현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책임성(.350), 사려성(.346), 활동성(.282), 우월성(.216)과도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보여 아동이 책임성, 사려성, 활동성, 우월성이 높을수록 상대방의 정서조절 및 자기 정서표현을 효과적으로 또는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상관관계 양상의 차이를 보면, 사려성과의 상관에 있어서 여아(.296)에 비해 남아(.401)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아에 비해 남아는 사려성이 높을수록 타인 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정성과 우월성은 남아(.110, .156)보다 여아(.211,

.245)가 높은 경향을 보여 남아에 비해 여아는 안정성과 우월성이 높을수록 타인정서 조절 및 자기정서 표현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감정이입 능력과 아동의 성격 특성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전체 아동의 경우 감정이입 능력이 사려성(.327)과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323), 여아(.335) 모두 다른 성격 특성에 비해 사려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 아동이 사려성이 높을수록 감정이입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성(.190), 활동성(.175), 책임성(.159)과도 상관이 낮지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상관관계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안정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아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아는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171) 여아는 남아와는 달리 안정성이 높을수록 감정이입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성의 경우 남아(.130)에 비해 여아(.236)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아는 남아보다 사회성이 높을수록 감정이입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여아는 무엇보다 안정성이 정서지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남아는 정서지능을 높이는 데 단연 사려성이 크게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3. 아동 성격 특성에 대한 정서지능의 설명력

아동의 성격 특성이 아동의 정서지능 즉 자기조절 및 활용, 정서인식, 타인조절 및 표현, 감정이입 능력을 각각 어느정도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아동과 남아 집단, 여아 집단으로 나누어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표 7>과 같다.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3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상태지수(condition index)(Belsley Kuh, & Welsch, 1980)는 10.43~18.02 범위에 속해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VIF(Varition Inflation Factor)들도 10이상이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1.02~2.05사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다중공선성에 중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아동의 자기조절 및 활용 능력에 대한 아동의 성격 특성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구 분	독립변인	B	β	R ²	F값
자기조절 및 활용 능력	전체	사려성	.022	.291***	.275	57.228***
		책임성	.013	.185***		
		사회성	.012	.161***		
		안정성	.011	.158***		
	남아	사려성	.021	.318***	.227	32.563***
		책임성	.010	.156*		
		사회성	.009	.130*		
		사려성	.022	.279***		
여아	책임성	.015	.206**			
	안정성	.013	.190**			
	사회성	.008	.118*			

*p< .05 **p< .01 ***p< .001

<표 5> 아동의 정서인식 능력에 대한 아동 성격 특성의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

종속변인	구분	독립변인	B	β	R ²	F값
정서인식 능력	전체	사회성	.017	.245***	.184	41.545***
		사려성	.016	.227***		
		책임성	.005	.082*		
		남향성	-.006	-.066*		
	남아	사려성	.023	.314***	.167	33.442***
		사회성	.013	.179**		
	여아	사회성	.020	.320***	.185	39.511***
		사려성	.016	.223***		

*p< .05 **p< .01 ***p< .001

1) 아동의 자기정서조절 및 활용 능력에 대한 성격 특성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전체 아동의 경우 자기조절 및 활용 능력의 예언변인은 아동의 사려성($\beta=.291$), 책임성($\beta=.185$), 사회성($\beta=.161$), 안정성($\beta=.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정서지능 요인에 대한 성격변인의 설명력은 27.5%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아동의 자기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예언변인은 아동의 성격 특성 중 사려성이며, 아동의 사려성, 책임성, 사회성,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아의 경우는 자기조절 및 활용 능력의 예언변인이 사려성($\beta=.318$), 책임성($\beta=.156$), 사회성($\beta=.130$)의 순으로 나타났고, 총 설명력은 22.7%였다. 이는 남아의 자기 정서조절 및 활용능력에 남아의 성격 특성 중 사려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예언변인임을 보여준다. 즉 남아는 사려성, 책임성, 사회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아의 경우, 자기조절 및 활용 능력의 예언변인은 사려성($\beta=.279$), 책임성($\beta=.206$), 안정성($\beta=.190$), 사회성($\beta=.11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33.1%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의 자기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능력에도 사려성이 가장 큰 강력한 예언변인이 되며, 여아가 사려성, 책임성, 안정성 등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능력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격 특성 중 특히 사려성은 남·녀 아동 모두에서 자기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능력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임성이나 사회성 또한 아동의 자기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아의 경우에는 남아와는 달리 안정성이 자기 조절 및 활용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도 여아(33.1%)가 남아(22.7%)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에 따라 자기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능력이 결정되는 정도가 남아보다 여아에게 있어서 더 높음을 의미한다.

<표 6> 아동의 타인조절 및 표현 능력에 대한 아동 성격 특성의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

종속변인	구분	독립변인	B	β	R ²	F값
타인조절 및 표현능력	전체	사회성	.024	.314***	.298	62.651***
		남향성	-.020	-.206***		
		활동성	.016	.187***		
		사려성	.011	.142***		
		책임성	.008	.105**		
	남아	사회성	.023	.290***	.247	27.282***
		사려성	.018	.227***		
		활동성	.014	.159**		
		남향성	-.013	-.105*		
	여아	사회성	.029	.404***	.303	37.562***
		활동성	.014	.171**		
		사려성	.012	.151**		
남향성		-.014	-.130**			

*p< .05 **p< .01 ***p< .001

2) 아동의 정서인식 능력에 대한 성격 특성의 설명력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전체 아동의 경우 정서인식 능력의 예언변인은 아동의 사회성($\beta=.245$), 사려성($\beta=.227$), 책임성($\beta=.082$), 남향성($\beta=-.06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인식 능력에 대한 성격변인의 설명력은 18.4%였다. 아동의 정서인식 능력에 아동의 성격 특성 중 특히 사회성과 사려성이 비교적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사회성, 사려성이 높을수록 정서인식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남향성은 오히려 낮을수록 정서인식 능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남아의 경우 정서인식 능력의 예언변인은 사려성($\beta=.314$)과 사회성($\beta=.179$)이었으며, 총 설명력은 16.7%였다. 즉 남아의 정서인식 능력에는 사려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으로서, 남아는 특히 사려성이 높을수록 정서인식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아의 경우 정서인식 능력의 예언변인은 사회성($\beta=.320$)과 사려성($\beta=.223$)이었으며, 총 설명력은 18.5%였다. 즉 여아의 정서인식 능력에는 사회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격 요인이며, 여아는 특히 사회성이 높을수록 정서인식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격 특성 중 특히 사려성과 사회성은 남·녀 아동 모두에서 정서인식 능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격 요인이며, 특히 남아의 사려성과 여아의 사회성이 정서인식 능력을 비교적 잘 설명해 준다.

3) 아동의 타인정서 조절 및 표현 능력에 대한 성격특성의 설명력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전체 아동의 경우 타인조절 및 표현 능력을 잘 설명해주는 성격변인은 사회성($\beta=.314$), 남향성($\beta=-.206$), 활동성($\beta=.187$), 사려성($\beta=.142$), 책임성($\beta=.10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격변인의 총 설명력은 29.8%였다. 이는 아동의 타인 정서 조절 및 정서표현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예언변인이 사회성이고, 아동의 사회성, 활동성, 사려성 등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향성이 낮을수록 타인 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남아의 경우, 타인조절 및 표현 능력의 예언변인은 사회성($\beta=.290$), 사려성($\beta=.227$), 활동성($\beta=.159$), 남향성($\beta=-.10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24.7%였다. 이는 남아의 타인조절 및 표현능력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예언변인이 사회성과, 사려성이고 이들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향성이 낮을수록 타인의 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능력이 높음을 보여준다.

여아의 경우, 타인조절 및 표현 능력의 예언변인은 사회성($\beta=.404$), 활동성($\beta=.171$), 사려성($\beta=.151$), 남향성($\beta=-.13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30.3%였다. 즉 여아의 타인 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능력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성이며, 그 다음은 활동성, 사려성으로서, 이러한 성격특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향성이 낮을수록 타인 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능력이 높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남아든 여아든 아동의 타인 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능력에는 사회성, 활동성, 사려성, 남향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남·녀 공히 성격 특성 중 사회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 설명력을 지닌 요인이 남아는 사려성, 여아는 활동성으로 나와 타인의 정서조절과 자신의 정서표현 능력에 남아는 사려성이, 여아는 활동성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변수의 총 설명력은 여아(30.3%)가 남아(24.7%)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의 감정이입 능력에 대한 성격특성의 설명력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전체 아동의 경우 감정이입 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해주는 성격요인은 아동의 사려성($\beta=.277$), 사회성($\beta=.181$), 우월성($\beta=-.113$)이었다. 감정이입 능력에 대한 성격변인의 설명력은 11.8%였다. 이는 아동의 감정이입 능력이 그의 사려성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사려성, 사회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우월성은 낮을수록 감정이입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남아의 경우, 감정이입 능력은 특히 사려성($\beta=.270$), 우월성($\beta=-.179$), 사회성($\beta=.134$)등의 성격요인에 의해 예측될 수 있었으며, 감정이입 능력에 대한 성격변인의 설명력은 11.8%였다.

<표 7> 아동의 감정이입 능력에 대한 아동 성격 특성의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

종속변인	구분	독립변인	B	β	R2	F값
감정 이입 능력	전체	사려성	.025	.277***	.118	32.837***
		사회성	.016	.181***		
		우월성	-.008	-.113*		
	남아	사려성	.024	.270***	.110	13.757***
		우월성	-.014	-.179**		
		사회성	.012	.134*		
여아	사려성	.026	.294***	.136	27.306***	
	사회성	.013	.164**			

*p< .05 **p< .01 ***p< .001

즉 남아의 감정이입 능력에는 사려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예언변인이며, 사려성과 사회성이 높고 우월성이 낮을수록 남아의 감정이입 능력이 높다는 것이다.

여아의 경우, 감정이입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격요인은 사려성($\beta=.294$)과 사회성($\beta=.164$)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13.6%였다. 이는 여아의 감정이입 능력에도 사려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예언변인이고, 사려성과 사회성이 높을수록 감정이입 능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아의 경우와 달리 여아에 있어서는 우월성이 높다고 감정이입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격 특성 중 사려성은 남·녀 아동 모두에서 감정이입 능력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사회성 역시 감정이입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아의 경우는 우월성이 높을수록 감정이입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감정이입 능력을 포함한 정서지능의 모든 요인에 대한 성격요인들의 설명력은 남아에 있어서보다 여아에 있어서 더 높게 나왔다.

I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격 특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해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아동의 성격 특성과 정서지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아는 남아에 비해 안정성, 사회성, 책임성, 우월성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남아는 여아에 비해 활동성, 남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보다 남아들이 활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김인희(1994)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여아는 남아에 비해 정서인식, 타인조절 및 표현, 감정이입 능력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어 여아가 남아보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기초한 타인 정서조절 및 자기 정서표현 능력,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는 능력인 감정이입 능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타인 조절 및 정서표현 능력에서 커다란 성차이를 보인 것은 초등학교 2, 4, 6학년 아동들의 정서지능을 성별, 학년별로 비교 분석해본 권운순(2002)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타인정서 조절 및 자기정서표현능력이 월등하게 높게 나온 것과 일치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감성 내지 정서지능 관련 교육 부분에서 남아들을 위한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를 포함한 별도의 배려 및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전반적으로 정서지능이 높게 나온 것은, 정서지능 중 자기 조절 능력, 타인 정서인식, 타인의

정서조절 능력, 정서지능 전체에서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이 차이가 있음을 밝힌 김은정(1998)의 연구결과 및 자기 감정인식 능력과 타인 감정관리 능력을 비롯하여 여아가 남아보다 감성지능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윤현석(1997)의 연구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아에 비해 여아가 자기 표현 능력이 더 높다고 밝힌 박정수(1998)의 연구결과 및 여아와 남아의 감성처리 학습 방법이 다르므로 감성지능도 남녀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Brody와 Hall(199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아동의 성격특성과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왔고 .3 이상의 경우도 1/3 이상, .2 이상은 1/2 정도로 나왔다. 이는 성격특성이 타인감정인식을 제외한 모든 감성지능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발견한 김은희(1999)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성격특성과 정서지능간의 유사성이나 개념중복을 지적한 연구들과도 어느정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아동의 책임성과 사려성이 높을수록 자기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능력이 높았으며, 남아는 특히 사려성이 높을수록, 여아는 책임성과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기 정서조절 및 활용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정서인식 능력은 사회성과 사려성이 높을수록 비교적 높게 나왔다. 남·여 공히 사회성이 높을수록 타인 정서조절 및 표현 능력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며 인내심을 유지하여 타인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보고한 윤현석(1997)의 연구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남아는 사려성이 높을수록, 여아는 사회성이 높을수록 타인조절 및 자기표현 능력이 더 높게 나왔는데, 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및 도움을 제공하고 자기정서를 건강하게 표현하는데에 남아는 생각하는 성격인 사려성이 필요하고 반면에 여아는 사회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남녀아동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 또한 감정이입 능력은 남·여아 공히 사려성이 높을수록 높게 나와 행동전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이 많은 것이 감정이입 능력에 필요한 특성임을 짐작하게 한다.

셋째,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한 성격특성의 설명력을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아동이 사려성, 책임성, 사회성,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안정적이고 사교적인 성격특성을 지닌 대학생이 불안정하고 비사교적인 성격특성을 지닌 대학생보다 새로운 사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적응한다고 밝힌 김영미(1990)의 연구결과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성격 특성 중 특히 사려성은 남·녀 아동 모두에서 자기조절 및 활용 능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아와 남아 모두에 있어 책임감이 높을 경우 자기정서 조절 및 활용능력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끝까지 자기

말은 바 임무를 완수해 내려는 성격이 강할수록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아는 남아와는 달리 안정성이 자기조절 및 활용 능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와 달리 여아의 경우는 성격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기 정서의 조절 및 정서의 긍정적 활용 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정신건강과 적응의 기초가 되는 성격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성은 불안이 없는 정서적 안정과 평온의 상태, 확고한 자신과 낙관, 침착과 태연함 등을 의미하므로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정서인식 능력은 사회성, 사려성, 책임성이 높고 남향성이 낮을수록 높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려성과 사회성은 남·녀 아동 모두에서 정서인식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남아든 여아든 간에 아동의 타인 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능력에는 사회성, 활동성, 사려성, 남향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사회성이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니며, 남향성은 낮을수록 타인조절 및 자기표현능력이 올라갔다. 이는 앞서 언급된 윤현석(1997)의 연구결과와 상통하는 부분이다. 타인조절 및 표현능력은 남녀아 모두에 활동성이 높을수록 높게 나왔는데, 이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도우려는 노력 및 주어진 상황과 대상에 맞는 적절하고 능동적인 정서표현능력이 기본적인 에너지와 열정 및 외부를 향한 관심이 있어야 나타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해주는 부분이다.

아동의 감정이입 능력은 성격적으로 사려성, 사회성이 높고 우월성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성격 특성 중 특히 사려성은 남·녀 아동 모두에서 감정이입 능력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회성 또한 감정이입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남아의 경우 여아와는 달리 우월성향이 높을수록 감정이입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월성이 적절히 있으면 매사에 일을 처리함에 있어 자신감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적절하게 높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와 지나친 자기 과시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신에 대한 이와같은 과대평가와 자기 과시의 행동은 오히려 비정상적 우월성으로 편집적 경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이상로, 변창진, 진위교, 1982)는 사실을 고려할 때 특히 우월성향이 높은 남아에 대한 별도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동의 성격 특성이 정서지능을 설명해 주는 설명력은 네개의 정서지능 하위 요인 모두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지능 발달에 성격 특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몸짓, 표정, 음조와 같은 단서들을 읽어내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정서능력을 측정하는 비언어적 민감성 검사(Profile of Nonverbal Sensitivity)를 개발한

Rosental(1977)은 이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은 감성적 측면에서 보다 훌륭한 적응력을 보이고, 보다 대중적이며 개방적이고 보다 안정적이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음을 밝힌 바 있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와 논의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여아는 남아에 비해 긍정적인 성격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안정성, 사회성, 책임성, 우월성 등이 더 높음이 발견되었고, 정서지능 또한 자기조절 및 활용 능력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지능이 전반적으로 높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아의 경우 안정성, 사회성, 책임성 등은 계속 유지·발달할 수 있도록 도우되, 남아의 경우 이들의 바람직한 성격 형성 및 정서지능 함양을 위한 학문적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절실히 요망된다.

둘째, 아동의 성격 특성 가운데서 사려성과 사회성은 정서지능의 모든 하위영역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논리적,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에 앞서 먼저 심사숙고하는 성격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고성이 높고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성격일수록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생산적,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 타인의 정서를 조절해주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정서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해줄 수 있는 감정이입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이 전반적으로 정서를 이해하고 다루며 대처하는 능력에 그의 성격 특성 중 특히 사려성과 사회성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의 사려성과 사회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녀아 모두에게 있어 성격특성 중 책임감이 자기정서 조절 및 정서활용 능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활동성이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능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다루어지거나 언급된 바는 없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의미있는 발견이라고 보여진다. 책임감과 같은 덕목은 업무수행이나 성취와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 역량 및 활동과도 관련이 있으며, 타인들과의 정서적 조율 및 표현능력에는 기본적인 활동성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남녀아 모두에게 있어 남향성은 타인조절 및 표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전형적인 남성성의 성격특성은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와 자기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의 발달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넷째, 여아의 경우 특히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기정서 조절

및 활용 능력이 높게 나타난 데 비해 남아는 우월성이 높을수록 감정이입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성격 특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의부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특히 우월 성향이 높은 남아를 대상으로 해서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입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과 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가 자기보고식 척도에 의존했다는 점은, 개인의 자기개념은 대체로 부정확하다는 주장(Taylor & Brown, 1988)이라든가, 실제로 측정된 지능과 지능의 자기보고 점수와의 상관관계가 .30이하였다는 보고(Paulhus, Lysy, & Kik, 1988), 또는 문제해결능력과 그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은 다른 것이라는 주장들(Carroll, 1993; Mayer & Salovey, 1993; Neisser et al., 1996; Scarr, 1989)을 고려할 때 개선과 보완의 여지를 지닌다. 정서지능 관련 연구 결과들간의 불일치라든가 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로 드러난 내용의 일부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 등의 문제는 정서지능 연구의 역사가 깊어지고 보다 다양하고 입체적인 방법으로 자료수집을 해 갈수록 조금씩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아동의 바람직한 성격 형성에 관한 몇가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성격 검사가 비록 표준화된 것이라고는 해도 오래 전에 제작된 것이어서 내용이 오늘날의 실정에 잘 맞지 않거나 아동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새로운 정서지능 척도의 탐색과 제작 및 보다 철저한 검증단계를 거쳐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두 변수들간의 관계를 보다 심도있게 연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아동의 바람직한 품성 형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접수 일 : 2002년 1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4월 4일

【참 고 문 헌】

곽윤정(1997). 정서지능의 발달경향성과 구인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윤순(2002).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영미(1990). 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성격특성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정(1998). 유아의 정서지능과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희(1999).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감성지능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인희(1994). 어머니-자녀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성격특성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용린(1997).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 서울 : 글이랑.
 문용린, 곽윤정, 이강주(1999). 정서지능 연구의 성과와 전망, 서울대 교육연구소.
 박영애, 최영희, 박인진(200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5(2), 161-182.
 박영애, 최은경(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인성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논문집 31권, 263-290.
 박영애, 최은경(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인성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21-238.
 박정수(1998). 초등학생의 감성지능과 가정환경 및 학업성적과의 관계 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영화 · 김미라 · 서혜희(1998). 나는 지적인 사람인가, 감정적인 사람인가. 서울 : 학지사.
 윤현석(1997). 감성지능과 창의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상로 · 변창진 · 진위교(1982). 표준화 성격진단검사. 중앙정서연구소.
 황태호 역(1996). 감성지능 - 하 a의 서울 : 비전코리아.
 Bar-On, R. (1997). *BarOn Emotional Quotient Inventory (EQ-i): Technical manual*. Toronto, Canada: Multi-Healti-Health Systems.
 Bar-On, R., & Parker, J.D.A.(Eds.)(2000).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 Theory, Development, Assessment, and Application at Home, School, and in the Workplace*. Jossey-Bass. A Wiley Company.
 Belsley, D, A., Kuh, E., & Welsch, R, E.(1980). *Regression Diagnostics*. N.Y.:John Wiley & Sons. Inc.
 Block, J. (1995). On the Relation between IQ, Impulsivity, and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Boyatzis, R. E., Goleman, D., & Hay/McBer. (1999). *Emotional competence inventory*. Boston: HayGroup.
 Brody, L. R., & Hall, J. A. (1993). *Gender and emotion, Handbook of Emotions*. New York : Guilford Press.
 Burger, J. M. (2000). *Personality*(5th ed.). Wadsworth.
 Carroll, J. B. (1993). *Human cognitive abilities: A survey of factor-analytic stud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nte, H. R. (1975). A circumplex model for personality traits. Ph. 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Cooper, R. K. (1996/1997). *EQ Map*. San Francisco: AIT and Essi Systems.
 Davies, M., Stankov, L., & Roberts, R. D. (1998). Emotional Intelligence : In search of an elusive constru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989-1015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47-959.
 Epstein, S. (1998). *Constructive thinking : The key to emotional intelligence*. Westport, CT : Praeger.
 Gibbs, N. (1995). The EQ Factor. (Time, October 2, 1995.

- Human Development 97/98. pp106-110. pp60-66, 68.)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 Goleman, D. (1998). Working with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 Izard, C. E. (1977). Human Emotions. New York : Plenum.
- Lazarus, R. S. (1986). Toward a sociology of emotions : Some problems and some solutions. *American Sociologist*.
- Mayer, J. D. (1995). The System-Topics Framework and the structural arrangement of systems within and arou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63, 459-493.
- Mayer, J. D. (1995b). A framwork for the classification of persnality componets. *Jorunal of Personality* 63, 819-877.
- Mayer, J. D. (1998). A Systems framework for the field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Inquiry* 9, 118-144.
- Mayer, J. D., & Caruso, D. R., & Salovy, P.(2000). Selecting a Measure of Emotional Intelligence : A Case for Ability Scales. In R. Bar-On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 Theory, Development, Assessment, and Application at Home, School, and in the Workplace*. Jossey-Bass. (pp. 320-342). A Wiley Company.
- Mayer, J. D., & Cobb, C. D.(2000). Educational policy on emotional intelligence : Does it make sense?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2, 163-183.
- Mayer, J. D., & Gaschke, Y. N. (1988). The experience and meta-experience of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102-111.
- Mayer, J. D., & Geher, G. (1996).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identification of emotion. *Intelligence* 22, 89-113.
- Mayer, J. D., & Salovey, P. (1993). The Intellig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telligence* 17, 443-442.
- Mayer, J. D., & Salovy, P.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Mayer, J. D., & Salov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egence? In P.Salovey & D.J. Sluyt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 Educational Implications*. (pp. 3-34) NY : Basic Books.
- Mayer, J. D., & Salovy, P., & Caruso, D.R. (1997). The Emotional IQ Test[CD-Rom]. Needham, MA: Virtual Knowledge.
- Mayer, J. D., & Salovy, P., & Caruso, D.R. (1999a). MSCEIT item Booklet (Research Version 1.1). Toronto, Canada: Multi-Health Systems.
- Mayer, J. D., & Salovy, P., & Caruso, D.R. (1999b). Working Manual for the MSCEIT (Research Version 1.1.) Manuscript in preparation, available from Multi-Health Systems, Toronto, Canada.
- Mayer, J. D., & Salovy, P., & Caruso, D.R. (2000). Emotional Intelligence as Zeigist, as Personality, and as a Mental Ability. In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 Theory, Development, Assessment, and Application at Home, School, and in the Workplace*(pp. 92-117). Jossey-Bass. A Wiley Company.
- Neisser, U., Boodoo, G., Bouchard, T. J., Boykin, A. W., Brody, N., Ceci, S. J., Halpern, D. F., Loehlin, J. C., Perloff, R., Sternberg, R. J., & Urbina, S. (1996). *Intelligence: knowns and unknowns. American Psychologist* 51, 77-101.
- Paulhus, D. L., Lysy, D. C., & Yik, M. S. M. (1998). Self-report measures of intelligence: Are they useful as proxy IQ tests? *Journal of Personality* 66, 525-554.
- Plutchik, K. R. (1980). A general psychoevolutionary theory of emotion. In R. Plutchik, & H. Kellerman(Eds.). *Emotion :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 (Vol. 1)*. London : Academic Press.
- Rubin, K. H. (1998).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from cultur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11-615.
- Salovey, P., & Sluyter, D.J(Eds.). (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 Educational Implications*. Basic Books.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Turvey, C., & Palfai, T.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W.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Washington, (pp. 125-154)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carr, S. (1989). Protecting general intelligence: Constructs and consequences for intervention. In R. L. Linn (Eds.), *Intelligence: Measurement, theory, and public policy*. Urbna, (pp. 74-118).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Taylor, S. F.,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